

26-06(통권 1007호) 2026.04.10

경제주평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노동시장 이중구조	3
3. 노동시장 간 비교	5
4. 시사점	8
< 참고 1 > 노동시장별 성별 및 연령대 구성	4
< 참고 2 > 노동시장 이중구조 변화	10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 개 요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고용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것과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쉬었음' 인구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쉬고 있는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진입 가능한 일자리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5년 8월) 결과에서도 20~30대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의 부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 포함 여부에 따라 1·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포함된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가 속한 1차 노동시장과 취약한 일자리가 속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였다. 2025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그중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인 반면, 2차 노동시장은 8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차 노동시장의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5년 8월 기준.

주2)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상위 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동시장 간 비교

① 급여

1·2차 노동시장 간 급여를 비교한 결과, 1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는 2차 노동시장의 약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약 495만 원으로 2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약 292만 원)보다 약 1.7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상 지위 및 산업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반영한 결과에서도 노동시장에 따라 1.4~2배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근속연수

1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는 2차 노동시장을 크게 상회하며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1·2차 노동시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1년 3개월, 5년 9개월로 약 2배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고려한 근속연수에서도 노동시장 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는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③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률도 1·2차 노동시장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과 달리 2차 노동시장의 가입률은 60~70%대에 그쳤다.

④ 기타 근로 여건

근로복지, 교육·훈련 경험, 노동조합 가입률 등 기타 근로 여건 또한 2차 노동시장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노동시장 간 근로복지(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 차이는 약 30%p로 2차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근로복지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시사한다.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의 격차도 컸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2차 노동시장 모두 낮았으나, 2차 노동시장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가 속해 있는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간 이동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외연을 넓히고 전반적인 고용 역량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

- 최근 고용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것과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고용 지표는 2025년 실업률 및 고용률이 각각 2.8%, 62.9%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

·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인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5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55만 5,000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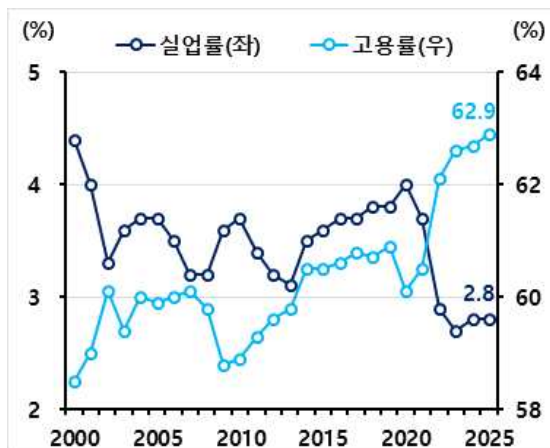
※ ‘쉬었음’ 인구(만 명): ('10) 141.9 → ('15) 159.4 → ('20) 237.4 → ('25) 255.5

-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대

· 2025년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각각 40만 8,000명, 30만 9,000명으로 이는 각각 20~30대 전체 인구의 7.1%, 4.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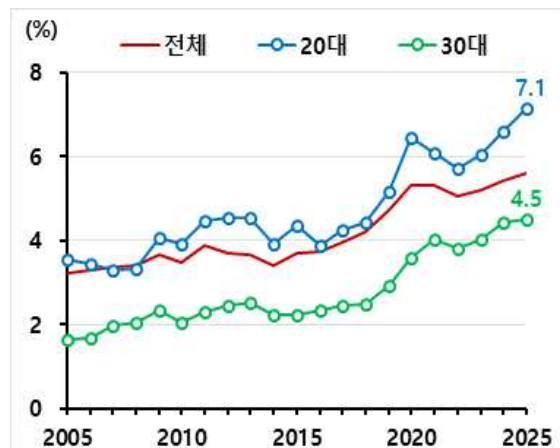
· 이처럼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핵심 생산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 및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연간 실업률 및 고용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비중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 : 연령별 전체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쉬었음’ 인구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청년층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쉬고 있는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진입 가능한 일자리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노동시장 이중구조론(dual labor market theory)¹⁾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고임금, 고용안정, 양호한 근무 환경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는 원하는 일자리(1차)와 실제 진입 가능한 일자리(2차) 간의 격차가 크고 노동시장 간 이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유인이 강화되며,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쉬었음’ 상태를 선택하게 됨
- 실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5년 8월) 결과에서도 20~30대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의 부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 (34.9%) 다음으로 ‘원하는 일자를 찾기 어려워서’ (19.0%)가 높은 비중을 차지
 - 20대의 경우 ‘원하는 일자를 찾기 어려워서’ (33.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
- 이에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연령대별 ‘쉬었음’의 주된 이유 비중(%)>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몸이 좋지 않아서	34.9	12.2	32.0	40.2	47.1	38.5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	18.4	3.9	6.2	3.4	9.8	34.0
원하는 일자를 찾기 어려워서	19.0	33.8	27.3	27.6	14.2	10.6
일자리가 없어서	10.8	10.1	8.1	10.7	16.2	9.9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	8.2	20.4	17.4	14.0	4.3	1.2
기타	8.8	19.5	9.0	4.1	8.4	5.7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5년 8월 기준.

1) Doeringer &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2.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 포함 여부에 따라 1·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포함된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가 속한 1차 노동시장과 취약한 일자리가 속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²⁾
 - 1차 노동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속한 노동시장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 상용근로자와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
 - 반면, 2차 노동시장에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취약한 일자리가 포함

< 노동시장 구분 >

		종사상 지위	노동시장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차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차
	무급가족종사자		2차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 상용근로자	1차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상용근로자	2차
	임시근로자		2차
	일용근로자		2차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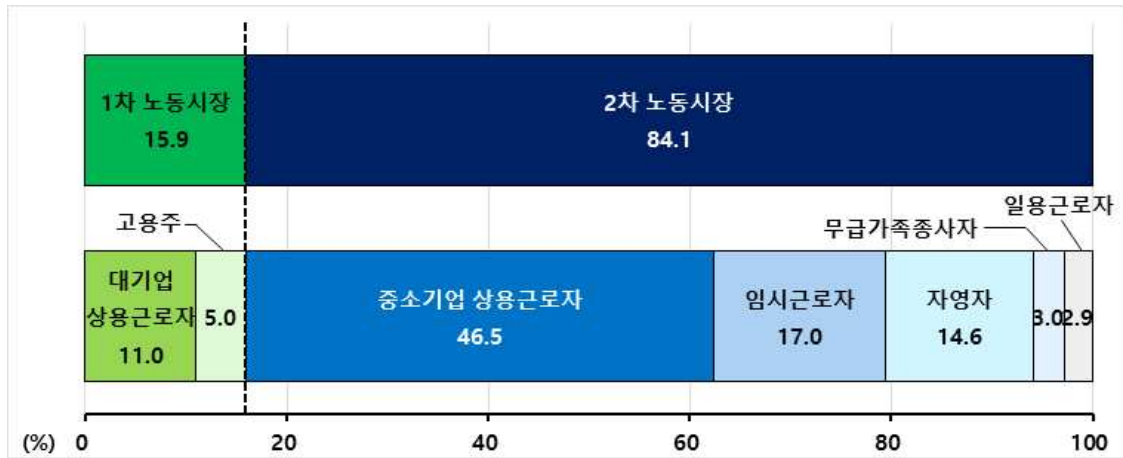
- 2025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그중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인 반면, 2차 노동시장은 84.1%인 것으로 나타남
 -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461만 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9%에 불과한 반면,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2,435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4.1%를 차지

2) OECD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50인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제공되는 통계의 한계로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

- 세부적으로는 2차 노동시장의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체 취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46.5%를 차지하는 2차 노동시장의 중소기업 상용근로자는 1,346만 3,000명임
- 2차 노동시장의 임시근로자와 자영자가 각각 493만 9,000명(17.0%), 424만 1,000명(14.6%)으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한편, 1차 노동시장의 대기업 상용근로자는 317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 이중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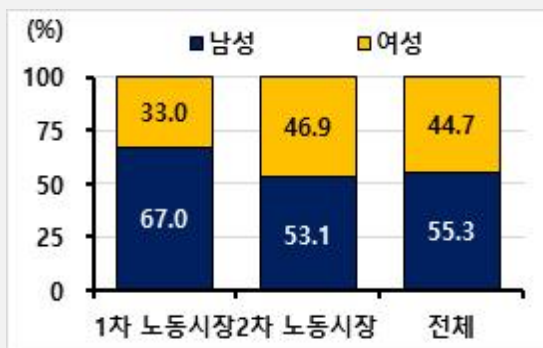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5년 8월 기준.

2)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상위 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1 > 노동시장별 성별 및 연령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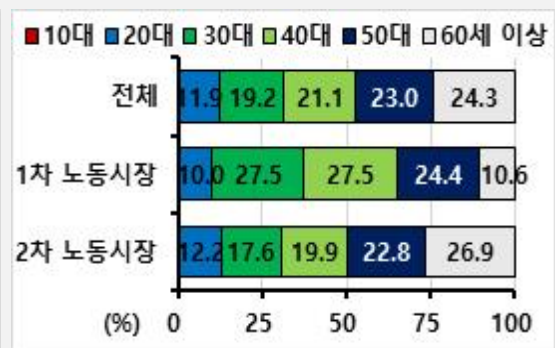
< 노동시장별 성별 구성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5년 8월 기준.

< 노동시장별 연령대 구성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5년 8월 기준.

3. 노동시장 간 비교³⁾

① 급여

○ 1·2차 노동시장 간 급여를 비교한 결과, 1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는 2차 노동시장의 약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약 495만 원으로 2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약 292만 원)보다 약 1.7배 높은 수준
- 종사상 지위 및 산업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반영한 결과에서도 노동시장에 따라 1.4~2배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을 기준으로만 비교할 경우, 종사상 지위 및 산업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종사상 지위·산업별 평균 급여를 추가로 산출
 - 2차 노동시장 상용근로자(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약 345만 원으로 상용근로자라는 동일한 종사상 지위에도 불구하고 1차 노동시장 상용근로자(대기업 상용근로자)보다 약 1.4배 낮은 수준에 그침
 - 또한, 동일 산업에 종사함에도 1·2차 노동시장에 따라 약 1.4~2배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종사상 지위별 평균 급여 > < 노동시장·산업별 평균 급여(만 원) >



구분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농업, 임업 및 어업	-	252
광공업	524	350
건설업	609	34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99	2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459	258
전기·운수·통신·금융	530	382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5년 8월 기준.
 2)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5년 8월 기준.
 2)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3) 급여, 근속연수, 사회보험, 근로복지 등의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

② 근속연수

- 1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는 2차 노동시장을 크게 상회하며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음을 시사
 - 1·2차 노동시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1년 3개월, 5년 9개월로 약 2배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를 고려한 근속연수에서도 노동시장 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는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
 - 2차 노동시장 상용근로자(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5개월로 1차 노동시장 상용근로자(대기업 상용근로자)보다 약 3년 10개월 짧음
 - 이는 고용계약 기간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물리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

③ 사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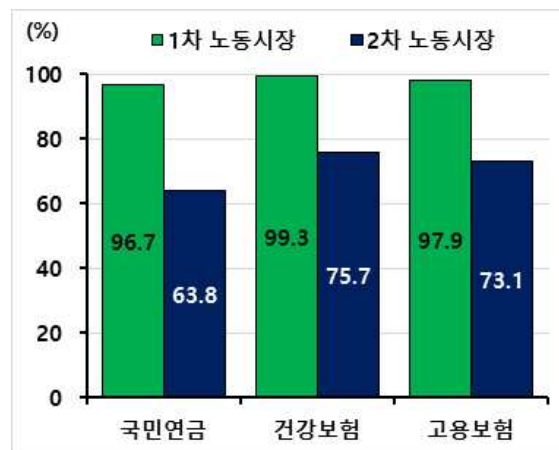
- 사회보험 가입률도 1·2차 노동시장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과 달리 2차 노동시장의 가입률은 60~70%대에 그침

< 노동시장·종사상 지위별 근속연수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5년 8월 기준.

< 노동시장별 사회보험 가입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5년 8월 기준.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 고용보험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하여 집계한 수치.

④ 기타 근로 여건

○ 근로복지, 교육·훈련 경험, 노동조합 가입률 등 기타 근로 여건 또한 2차 노동시장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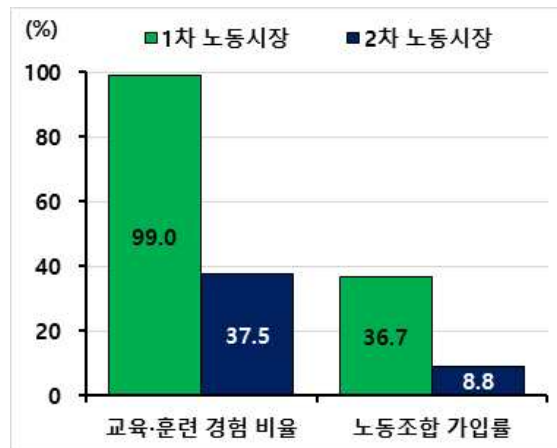
- 1·2차 노동시장 간 근로복지(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 차이는 약 30%p로 2차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근로복지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시사
 -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근로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차 노동시장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70% 내외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시간외수당 수혜율의 경우에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함
-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의 격차도 큼
 -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교육·훈련을 경험한 것과 달리 2차 노동시장은 37.5%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역량 개발 기회의 격차는 노동시장 내 숙련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한
- 노동조합 가입률은 1·2차 노동시장 모두 낮았으나, 2차 노동시장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⁴⁾

< 노동시장별 근로복지 수혜율(%) >

구분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퇴직급여	99.6	72.8
상여금	95.1	66.1
시간외수당	84.8	49.6
유급휴일	97.1	64.1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5년 8월 기준.

< 노동시장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노동조합 가입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2025년 8월 기준.
2)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

4) 1·2차 노동시장의 노동조합 미결성 비율은 각각 24.3%, 79.2%로 2차 노동시장에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라 가입 여건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4. 시사점

○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첫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가 속해 있는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 1·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고착화될 경우, 구직자는 하위 시장 진입을 기피하고 '쉬면서' 상위 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됨
- 따라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노동시장 간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여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근로자 또한 근로 여건 개선이 기업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업 훈련 및 역량 개발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

둘째, 노동시장 간 이동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 근속연수보다는 직무의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정착시켜 기업 규모나 소속과 관계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 이동의 장벽을 낮추어야 함

- 또한, 실질적인 직무 역량 및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직무 역량 인증 체계를 강화하여 하위 시장에서의 경험이 상위 시장 이동 시 정당하게 평가받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직업 이동 시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 보험 혜택 확대, 전직 지원 수당 지급 등 1·2차 노동시장 간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셋째,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외연을 넓히고 전반적인 고용 역량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 로봇,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창업 초기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경직된 일자리 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함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HRI**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 참고 2 > 노동시장 이중구조 변화

- 2005년 기준,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0%로 2025년에는 그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1·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각각 15.0%, 85.0%로 2025년에는 각각 15.9%, 84.1%를 기록하며 1차 노동시장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도 200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급여 및 노동조합 가입률 격차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1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는 약 261만 원으로 2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약 146만 원)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며, 이 격차는 2025년에도 약 1.7배로 유지되며 급여 격차가 고착화된 모습을 보임
 - 1·2차 노동시장 간 노동조합 가입률 격차 또한 약 30%p를 기록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 반면, 근속연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의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는 2005년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 이중구조 변화 >

구분	2005년			2025년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격차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격차	
비중	15.0%	85.0%	-	15.9%	84.1%	-	
평균 급여	261만 원	146만 원	1.8배	495만 원	292만 원	1.7배	
근속연수	10년 2개월	3년 9개월	2.7배	11년 3개월	5년 9개월	2.0배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99.8%	56.5%	43.2%p	96.7%	63.8%	32.8%p
	건강보험	99.9%	57.0%	42.9%p	99.3%	75.7%	23.7%p
	고용보험	84.2%	49.2%	35.1%p	97.9%	73.1%	24.8%p
근로복지 수혜율	퇴직급여	99.6%	48.2%	51.5%p	99.6%	72.8%	26.8%p
	상여금	98.6%	46.1%	52.5%p	95.1%	66.1%	29.0%p
	시간외수당	92.3%	37.3%	55.1%p	84.8%	49.6%	35.2%p
	유급휴일	94.4%	38.6%	55.8%p	97.1%	64.1%	33.0%p
노동조합 가입률	37.6%	8.4%	29.2%p	36.7%	8.8%	27.8%p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연도 8월 기준.